

序 文

晉州姜氏는 本貫이 晉州外에 衿川·安東·白川·海美·同福·光州 등이 있다。그 中 衿川姜氏는 저 有名하신 姜邯贊將軍仁憲公 子孫들이는데 西紀九三三年 新羅末·高麗初에 晉州姜氏에서 分籍되었고 또 同福姜氏의 始祖는 遇文 光州姜氏는 夢龍云하므로 亦是 民瞻殷烈公派——司評公派에서 分籍된 것이 아닌가 본다。그러므로 晉州姜氏는 他姓들과 같이 같은 일가간에 宗氏라고 呼稱하지 않고 原則的으로 行列에 따라 族丈·族大父·族叔·族兄·族弟·族姪·族孫 등으로 불려 自古로 그 本貫의 單一性을 自矜하고 있다。그리고 또 우리 子孫들로서 더욱이 確實하게 알아야 할 것은 晉州姜氏始祖諱以式元帥公의 事蹟인데 西紀五九七年 高句麗朝에 兵馬元帥로 臨榆關(中國山海關)大戰에서 隋나라 大兵을 擊破하고 國威를 크게 宣揚하였으며 저 유명한 乙支文德將軍도 公의 幕下였다는 記錄이 있으나 當時 強大國인 中國의 壓力을 받아 事

大思想으로 金富軾의 三國史記 등 大部分의 史記에는 姜以式將軍의 姓名三字는 勿論이고 勝戰史記조차 밝히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多幸히도 日政末葉 殷烈公派 後孫이 滿洲에 가서 옛 高句麗땅인 現滿洲奉天省 清原縣元師林西麓 卽 奉吉線鐵道元師林驛東便七〇〇미터 地點의 元師公墓所에 參拜하고 奉審하였다는 說에 依據하여 오늘까지 始祖 元師公을 猥濫하게도 隋나라 歸化人 或은 新羅人이 아닌가 하는 疑惑과 曖昧한 態度를 取한 일가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러한 그릇된 推理는 此際에 拂拭하고 心機一轉 다시 한번 崇祖思想仰揚에 一層留意을 바라는 바이며 다음으로 御史公派의 中祖諱師瞻 監察御史公은 아래와 같이 同諱同官職의

- 1 西紀九七八年—一〇四四年代(姜民瞻殷烈公과 姜邯贊仁憲公과의 同一時代)의 諱
姜師瞻 監察御史公 그 配位는 杜永信의 딸 杜山杜氏와

- 2 西紀一二三三—三三三年代의 諱姜師瞻 監察御史公 그 配位는 漆原尹氏

두분의 祖上이 계시며 그年代와 配位가 分明히 다른데도 大部分의 後孫들이 西紀一〇〇〇年代의 御史公을 疑訝하게 生覺하여 他派宗族間에 여러가지 問題가 자주 派生되고 있는 바 이러한 것도 亦是 左와 같은 文獻을 考證 삼아 밝히는 바임.

西紀一九七二年 某派族譜 跋文附記에 師瞻御史公年代關係로 曰可曰否한 바가 있음.

西紀一〇〇〇年代諱師瞻御史公에 關한 參考文獻

- 1 西紀一六六二年 (李朝顯宗三年) 壬寅仲春 御史公派 南漢譜의 義禁府都事 碩老序文 拔萃

『吾姜氏有兩派皆出於晉山而有川內川外之分其一即吾宗也其一即殷烈公姜民瞻之後也』

- 2 西紀一七二七年 (李朝英祖三年) 丁未季冬 殷烈公派 舊譜議政府左參贊 覲

(白閣公)序文拔萃

『派分爲二一則 鼻祖殷烈公派也 一則監察御史公派也』

3 諱元老 關西伯派舊譜上系

4 西紀一九三一年 御史公派 新譜 璿源殿令命海西查辨官 宣諭使 琬熙序
文拔萃 및 同新譜上系

『殷烈公諱民瞻御史公諱師瞻雖有川內川外之別屬親則從兄弟也』

5 東國名賢錄 下卷

끝으로 晉州姜氏 大同譜가 아직 發刊되지 못한 이 時點에 猥濫하게도 殷烈公派・御史公派(通亭公派 通溪公派)仁憲公派를 統合한 晉州姜氏宗鑑을 創刊하게 됨은 將次 晉州姜氏 大同譜刊行의 基礎準備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不肖於焉 間 古稀의 몸으로 至難之事이나 일가들의 勸誘도 있고 하여 自身의 力量未及도 돌아보지 않고 莫重한 晉州姜氏宗鑑編纂을 畢하였으나 未備 補完할 點이 許多함을 悚懼히 生覺하며 今後有志碩學의 大成을 빌고

『派分爲二一則 鼻祖殷烈公派也 一則監察御史公派也』

3 諱元老 關西伯派舊譜上系

4 西紀一九三一年 御史公派 新譜 璿源殿令命海西查辦官 宣諭使 玠熙序
文拔萃 및 同新譜上系

『殷烈公諱民瞻御史公諱師瞻雖有川内川外之別屬親則從兄弟也』

5 東國名賢錄 下卷

끝으로 晉州姜氏 大同譜가 아직 發刊되지 못한 이 時點에 猥濫하게도 殷烈公派・御史公派(通寧公派 通溪公派)仁憲公派를 統合한 晉州姜氏宗鑑을 創刊하게 됨은 將次 晉州姜氏 大同譜刊行的 基礎準備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不肖於焉 間 古稀의 몸으로 至難之事이나 일가들의 勸誘도 있고 하여 自身의 力量未及도 돌아보지 않고 莫重한 晉州姜氏宗鑑編纂을 畢하였으나 未備 補完할 點이 許多함을 悚懼히 生覺하며 今後有志碩學의 大成을 빌고

所感의 一端을 略敍하는 바이다。

西紀一九七六年 四月三日 後孫信昌謹記

跋 文(後序)

晉州姜氏宗鑑은 그 系譜와 옛날의 大科(高等考試)에 及第하고 벼슬을 많이 하신 분의 行績과 또는 國家社會에 示範的이고 功勞가 多大하신 分들을 總網羅記錄하여 그 崇高하신 勲功을 깊이 追慕保存하려는 것인데, 더욱이 이번에는 殷烈公派·御史公派·仁憲公派의 統合을 企圖한 것은 爲先之誠과 宗族의 敦睦을 爲하여 千萬多幸한 일이라고 思料하는 바이다. 最近殷烈公派 大宗會에서는 姜氏始祖 高句麗兵馬 元帥以式 戰功記를 爲政關係當局에 建議하여 國威宣揚과 民族精神을 振作시키도록 國定教科書에 插入을 要請한 바 있음은 極히 當然之事라 하겠으며 率直히 말해서 姜氏後孫들의 崇祖思想普及이 缺如되었고 또 譜學研鑽과 爲先之誠이 未及하여 先祖의 行蹟이 事實대로 暢達되지 못하였음을 甚히 痛嘆하여기는 바이다. 그리고 또 各派의 族譜를 보면 저 燕山

君의 暴惡無道한 處事 卽刑罰以上の 惡刑(梟首・陵遲處斬・剖棺斬屍・碎骨
 飄風等)에 對하여도 單純히 被禍라고 記錄되어 있을 뿐 君主에 對한 逆
 謀가 아닌 以上事實대로 記錄하여 子孫萬代에 警覺心を 喚起시켜 永
 久히 憎惡와 憤怒心を 가지도록 하여 마땅할 것이다 또 近世朝鮮의 恥
 辱의인 四色黨爭으로 私利私憾에 起源된 上疏한 장에 依해 簡單히 流
 配(귀양)・削奪官職・解流配(풀려나는 것)를 茶飯事로 한 過去之事인데 이
 것亦是 族譜에서 드물게 보는 일이다. 現世態로선 모든 過去를 事實
 대로 記錄함이 마땅하며 決코 祖上을 辱되게 하는 處事가 아니라고 본
 다.

끝으로 우리는 教育機關을 通하여 國史를 工夫하고 世界史를 배워
 왔으나 不幸하게도 정작 先祖의 行蹟은 姑捨하고 自己祖上 四、五代의
 諱(이름)字조차도 가르치지 않고 또 子孫들이 알려고도 하지 않음은 참
 으로 寒心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崇祖思想은 人倫道德의 根本이 된

다 고 思料하오니 다 같이 子孫들의 指導敎養에 萬全을 期할 것이며 이
에 느끼는 바를 삼가 略記하는 바이다。

西紀一九七六年 四月 五日 後孫瑞龍 謹識